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PAPER HEARTS

가제 : 종이 심장

저자 : S.R. Savell

출판사: Medallion Press

발행일: 2014년 4월 15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친한 친구도 다정한 가족도 없이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가는 소녀, 그 앞에 나타난 따뜻한 남자

고압적이고 무능력한 학교 상담교사, 지독하게 괴롭혀대는 학교 아이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 남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엄마, 이들 사이에 끼어 사는 열일곱 살 미셀에겐 하루 하루가 고역이다. 아빠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매일 방과후면 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집에 돌아가서 자고 다시 지옥 같은 학교로 돌아가는 일상을 꾸역꾸역 살면서 미셀의 마음은 증오심과 분노, 외로움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애정이나 관심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고 애쓰면서 겨우 살아갈 뿐이다.

오후 네 시부터 여덟 시까지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마치 유리 새장에 갇힌 새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셀. 한밤중에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매일 마치는 시간이면 엄마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온다. 딱히 걱정이 되어서라기보다, ‘너란 아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내버려두면 무슨 거짓말을 할 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확신하는 엄마가 만든 규칙이었다. 제대로 된 학위도 없이 쪼들리는 월급에 치여 무성의하게 학생들을 대하는 학교 상담교사도 자신을 비슷하게 정의했다. 두 사람 모두 미셀은 ‘성격 개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아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그런 생각도 영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철사 한 줄로 남의 차에 시동을 걸줄 아는 걸출한 재주를 발휘해서 할머니의 차를 몰고 호숫가로 내달린 전력이 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엄마나 상담교사 모두 미셀의 행동만 볼 뿐,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

엄마는 간호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복한 집안 출신인 아빠와 만나 미셀을 낳았다. 아빠는 작가가 되겠다는 순수한 꿈을 좇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글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창작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스트립 클럽을 전전하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6년 뒤, 아이스크림 트럭 운전수가 되어 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미셀은 줄곧 엄마와 단둘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미셀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온다. 나다니엘이라는 키가 훤칠한 남자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삶의 희망과 사랑의 감정, 하지만 또다시 그 싹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사건

미셀이 일하는 편의점에 가게 주인을 만나러 왔다면 처음 찾아온 나다니엘. 거의 아르바이트생만 가게를 지키는 터라 미셀이 나다니엘의 용건이나 부탁을 몇 번 주인에게 전해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기 시작한다. 온화한 분위기와 따뜻한 말씨에 미셀은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길게 나누기 시작하고, 나다니엘처럼 혹은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다니엘 역시 인생이 그리 순탄치 않은 사람이었다. 고등학교는 다니다가 중퇴하고, 회사 세 군데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를 부양하는 착한 손자였다. 미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정 많고 성실하게 사는 나다니엘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인간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과 혐오감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낀다. 나다니엘의 할머니 역시 건강은 쇠약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거칠고 어두운 미셀의 내면에 아직 피어나지 못한 따스한 마음과 착한 본성을 다 읽은 듯, 할머니는 미셀이 엄마에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진한 모성애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미셀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무렵,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낀 삶에 대한 믿음, 나다니엘을 향해 자연스럽게 품기 시작한 사랑의 감정을 모두 뒤흔든 그 사건은 미셀이 그토록 질겁하며 증오하던 현실이 어찌면 절대 개선될 수 없는 현실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

추악한 현실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힘껏 방어하며 살아가는 나다니엘, 가슴을 가득 채운 분노를 방패 삼아 누구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미셀.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대는 과정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맞이한다. 잔인할 정도로 현실을 그대로 담은 결말이 더욱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S. R. 사벨(S. R. Savell)은 텍사스 험스테드에 살면서 예술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제목 : SUGAR

가제 : 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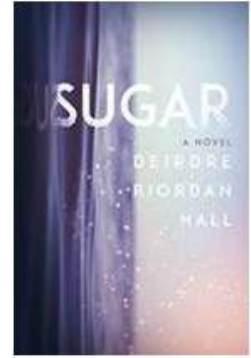
저자 : Deirdre Riordan Hall

출판사: Skyscape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분량 : 26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볼 만큼 동동한 소녀, 폭식과 빠저린 후회가 반복되는 악몽 같은 현실

푸에르토리코인과 폴란드인의 피가 반씩 흐르는 독특한 외모의 슈가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국적인 외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엄청난 몸집 때문이다. 열일곱 살, 한창 외모에 신경 쓰고 꾸미고 가꿀 나이지만 슈가는 극심한 비만 상태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상태가 즐겁게 먹고 마신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슈가를 폭식으로 이끌었다.

슈가는 엄마, 오빠와 함께 뉴햄프셔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낡아빠진 집에 살고 있다.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진 지 오래고, 엄마와 오빠 역시 심각한 비만이다. 특히 엄마는 220 킬로그램이 넘는 초고도 비만이라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발목을 다친 바람에 꿈쩍없이 침대에 누워서 지낸다. 엄마가 다친 후부터 슈가는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쉴 틈 없이 잔심부름을 시키는 엄마의 병수발도 들어야 했다. 엄마는 담배며 음식을 코 앞에 갖다 달라고 슈가를 하녀 부리듯 부려대지를 앓나, 먹기 싫다는 슈가에게 음식을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라고 강요해놓고는 그렇게 똥똥해서 어찌려고 그러냐며 심한 말로 모욕을 준다. 마치 엄마는 비만이 아닌 것처럼, 슈가에게 역겹다고까지 독설을 퍼부으면서 정작 아이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거나 염려하지는 않는 엄마. 그런 엄마 때문에 슈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다.

오빠 스캅크 역시 골칫덩어리였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폭력을 휘두르는 오빠는 슈가를 수시로 밀치고 걷어 차고 욕하며 구박한다. 그저 구박이 아닌 학대에 가까운 오빠의 못된 행각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든 어디에서든 제멋대로 발산되어, 슈가와 똑같이 거구를 자랑하면서도 그 누구도 오빠를 놀리거나 건드리지 못한다. 슈가는 이 악몽 같은 집을 떠나 학교로 피하고 싶지만, 집 밖을 나선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이며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굵지 않은 시선으로 훑어보기 일쑤다. 학교에선 사악하기로 이름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슈가를 놀려대고 괴롭힌다. 그러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허기가 느껴질 때나 배가 부를 때나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대는 것뿐이다. 슈가는 이 우울함과 고립감이 만든 폭식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다. 뒤이어 덮치는 극심한 후회와 부끄러움, 자신에 대한 혐오감은 슈가를 더욱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만난 진짜 친구,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해준 한 조각의 희망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아이가 되고 싶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슈가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친구가 나타났다. ‘이븐’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전학생은, 처음으로 뚱뚱한 외모가 아닌 그 겉데기 밑에 자리한 슈가의 진짜 모습을 봐주고 인정해 주었다. 원래 이름은 ‘이반’이었지만 글자를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출생신고서에 철자를 틀리게 쓴 바람에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된 이븐 역시 집안 사정이 심각했다. 절친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소소한 모험을 즐기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각자의 비참한 현실을 떨치려고 애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결코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던 희망, 희미하지만 그 희망의 가능성을 본 슈가는 어쩌면 현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자신도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븐과 슈가 앞에 또 한번 거센 비극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슈가는 갈림길에 선다.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요소가 가득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의 경로 쪽으로 한 발 들여볼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어 치우는 슈가의 모습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볼 만한 일이기에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남이 아닌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 집단 따돌림의 문제도 생생하게 그려진다. 절망 속에 묻혀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주인공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데어드레이 라이어던 홀(Deirdre Riordan Hall)은 십대 시절 미국과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만들고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꿈꿨다. 『To the Sea』, 『Surfaced』, 등으로 구성된 ‘Follow Your Bliss’ 시리즈를 발표했다.